나는 항상 근본을 믿고 근본에다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 17면에서 계속

체 유위법을 환상으로 보지 못하고 거기에 걸려서들 울고불고 야단들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큰스님 앞에 앉으면 꼭 이렇게 떨립니다, 허허허.

그런데 매일 예불을 드리거나 그러면 주변에 있는 병든 이, 미혹한 이, 이런 사람들이 저와 공부를 같이 해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도도 하고 관하고 계속 마음을 내고 그럽니다. 큰스님께서 그전에 '하늘을 보면 웃고 땅을 보면 눈물이 나온다.' 그러셨는데, 제가 그 주변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상당히 많이 흐릅니다. 여름철 한낮 나서 울다 가는 매미는 천지가 여름인 줄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살이는 낮만 있고 밤과 새벽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물 안 개구리는 천지가 우물 뚜껑만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온 습과 업의 그 독속에 파묻혀 가지고 그 시각에서 세상을 보면서 울고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 힘이 없어서 그런지 고집 세고 자기 주장을 강변을 하는 사람들을 이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후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그들을 제도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질문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수능엄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여래가 멸한 후에 말법 시대가 되면 고기 먹고 다 하면서도 소위 '도를 깨쳤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볼 때에는 효봉 스님이나 경허 대선사 같으신 분은 걸림이 없이 행을 하셨는데, 저는 재가 불자지만 마음은 스님같이 끝없이 닦아 나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주변의 사람들하고 직장에서 어울리고 하다 보면 뭐, 매운탕도 먹을 때가 있고 술 한 잔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내가 마귀가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때때로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경허 스님이나 효봉 스님의 그 걸림 없는 행을 보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것이 항상 걸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후에 공부를 어떻게 해 가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하고요, 두 번째는 그들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하고, 세 번째는 재가 불자라고 하지만 제가 주변의 사람들하고 매운탕 먹고 이러는 것이 공부를 진정으로 해 나가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큰스님께서 법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큰스님 첫째는 자기를 자기가 이끌어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둘째는 자기 몸뚱이 속의 자생 중생들을 제도를 못 했기 때문에, 조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셋째는 남들에게 보이는 이 모습이 부처님 모습 같지가 않으니깐 그렇고, 하하하. 어때요? '모든 것을 알기만 해도 아니 되느니라.' 하는 거는 '천차만별로 찰나찰나 바뀌고 찰나찰나 나투는데, 어떤 거 할 때 내가 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 내 도량 아님이 하나도 없고, 하다못해 곤충에 이르기까지 나 아님이 하나도 없느니라.' 하는 그 뜻을 모르게 되기 때문이죠. 천차만별로 내 속에 들어 있는 중생들을 제도를 못 했기 때문이지. 어디로 가, 그게? 그 속에서 나오는 게 그냥 그렇지.

그러니 아는 것만 많고 지식이 많고 모든 걸 달달달달 외워서 이 세상이 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를 알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야. 내가 다리 병신이 돼서 요만큼 한 발짝을 떼어 놓지 못하고, 귀머거리가 돼서 듣지 못하고, 눈 한쪽이 멀어서 보지 못한다면 그거는 헛거야, 전부. 그래서 부처님이 '오신통을 한다 하더라도 했다고 하지 마라. 모두 오신통 안에 조복을 받고 오신통을 벗어나야만이 오신통을 굴리고 그 응신이 화해서 천백억으로 나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천백억이란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아는 거를 다 놓으면 혹시 모르지. '아이고, 이것이 열반 경지가 아닌가. 이 세상이 다 그런 게 아닌가. 이게 내가 홀연히 깨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다 안다 하더라도…, 이 물컵에 물이 들어 있는 거를 보고 알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이 물컵을 들어서 목마른 사람을 먹일 수 있고 내가 (물을 마셔 보이시며) 이렇게 먹을 수 있어야만이, 그게도 아닌 도예요. '도' 도 이름일 뿐이지, 도 아닌 진실한 도!

그러니까 그 아는 거를 다 좀 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아는 거를 그 나오는 구멍에, 보고 듣고 알고 이러는 거를 나오는 거기다가 다시, '아는 것도 네가 아는 거지 내가 아는 게 아니니까, 또 듣는 것도 네가 듣는 거지 내가 듣는 게 아니니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요,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게 아니니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잖아.' 하고 거기다 되놔야만 얻을 수가 있는 거지, 그건 남이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속시원히 털어놓고, 진짜로 그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 나가면…, 그래서 '공덕이다' 하고 쉽게 말을 하지만, 공덕은 사무사유(四無四有), 이 모든 보이는 세계와 안 보이는 세계 천체가, 우주 전체, 삼라대천세계가 한데 합쳐져서 천차만별로 돌아가고 나투는 그 법을 알고 실행할 줄 아는 사람이 즉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올려놔도 공양이라고 하지 밥이라고 안 그러죠? 공양, '공양을 올린다' 그러죠. 이 세상 생명을 가진 것들은 전부 공식이니까요. 공식으로 받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공식이 될 수 있어야만이 여래도 될 수 있고 부처도 될 수 있는 거지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이 아니 되면 그건 공덕이 될 수가 없어. 너, 나가 따로 없이 나투니깐 말이야.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보든 악한 사람을 보든, 그것을 '너는 악해.' 이렇게 보질 마라, '너는 참 잘났어.' 이러지도 마라, 이러는 겁니다. 그건 왜? 나쁜 사람도 금방 좋아질 수 있고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좋게 하는 사람도 금방 언짢은 일을 하고 사기도 칠 수 있어.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모든 것이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는 거를 직시하고, 나는 항상 근본을 믿고 근본에다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 부처님의 마음 뜻에 의해 일체를 하나로 놔라.
> 오직 부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과 둘 아니게 믿어라.
> 믿고 부처님의 법을 둘 아니게 행해 나가라.

쉽게 말하자면 '맷돌이 돌아가는데 그 심봉은 힘만 배출해 주지 움죽거리진 않는다. 그러나 맷돌은 쉴 사이 없이 돌아간다. 쉴 사이 없이 돌아가는 데다가 내가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갈아 먹으려고 하는 재료를 갖다 넣는다. 그래서 갈려 나오면 그걸 받아먹는다. 그러니까 그 힘을 배출해 줄 수 있는 그 심봉만을 진짜로 믿고, 거기다가 심봉을 똑바로 꽂아야 갈려 나온다는 걸 미리 알고, 갈려 나오는 것도 거기를 믿어야 하고, 갈려고 놓을 때도 거길 믿어야 하고, 감사하게.' 그런 거와 같다 이 소립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으면 안 되고,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러한 의문을 담담하게, 내 안으로부터 모든 걸 자아내서 내가 지혜롭게 알도록 생활을 그렇게 하시면서 진행해 나가다 보면 생활이 그대로 법이에요. 부처님의 법이자 우리들의 법이에요, 그냥. 그리고 부처님의 몸이자 우리들의 몸이구요. '일체제불의 마음' 그것을 부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더운 거 찬 거 가리지 말고 더우나 차나, 잘살든지 못살든지, 모든 생활은 우리가 무대 위에 올라서서 탤런트 생활을 해 가면서 소임을 맡아 가지고 가는 것이라는 그 생각을 잊지 마시구요. 지금 현재 탤런트로서 맡은 소임에 익숙해지게 되면 그것이 요다음 생에도 오는 거니까요.

질문자7(남) 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는 금생에 부처님 법을 따를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주인공 자성 부처님과 큰스님, 그리고 시방 제불보살 마하살님께 그 한량없는 감사함을 항상 느끼면서, 세세생생 시방 제불보살 마하살님들, 그리고 대행 큰스님 곁에 있기가 원입니다. 그걸 항상 발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도 금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가지고 가장 사람답게, 그리고 눈을 감을 때까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큰스님 너무 많아. 너무 많이 알고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덮여요. 그러니까 좀 어리석은 듯하게, 응? 그냥 무지하게, 그냥 들어가라구. 부처님의 마음을 나와 둘 아니게 믿고, 부처님의 법을 둘 아니게 따르면서 부처님의 행을 둘 아니게 하면서, 삼합이 둘이 아니게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이렇게 관하고 들어가게끔 우리들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또 우리 한국의 불교가 부처님의 마음을 둘 아니게 믿고 부처님의 법을 둘 아니게 따르고, 부처님의 행을 둘 아니게 하게끔 종지를 세워서 전체 불자들을 이끌어 간다면 아무 걱정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종지를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고, 모아 놨다가 벌겨서 헤쳐 놓고, 헤쳐 놨다 벌겨 놓고 이렇게 야단들을 하니, 제가끔들 그냥그냥 모두 흩어지죠, 불자들이. 기독교는 하나님으로 하나로 뭉쳐 놨어요, 타의에서 구하는 기도지마는. 그런데 깨우치진 못할지언정 질서는 지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불(佛) 종지를 '부처님의 마음 뜻에 의해서 일체를 하나로 놔라. 오직 부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과 둘 아니게 믿어라. 믿고 부처님의 법을 둘 아니게 행해 나가라.'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각자 흩어지지 않고 똘똘 뭉쳐서 돌아가는 믿음이 될 텐데, 그렇지를 않거든요.

이거를 모시면 또 다르게 보고 요거를 모시면 다르게 보고, 요런 염불을 하면 다르게 보고 저런 염불을 하면 다르게 보고, 요런 선사는 옳고 저런 선사가 그르고 이렇게 선사 타령들을 해 가면서 그런단 말입니다. 딱 이렇게 종지를 해 놓으면, 그거는 수만 명이 깨쳤다 하더라도 부처님 한 분이지 두 분도 아니에요.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수만 개의 마음이 한데 합쳐져도 그건 여래일 뿐이지! 그리고 부처님일 뿐이고!

그리고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이 몸뚱이 속에 지금 잔뜩 들어 있는 생명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벗어나지 않는 생명들이 모두가 한데 합쳐서 공생으로 살고 있고, 공용을 하고 있고, 공식을 하고 있고, 공체로서 더불어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여래거든요.

그러니 심사숙고해서, 내가 모든 거를 다 알고 있다는 그 아만과 아상, 모두를 다 놔서 내가 깨달아 가지고, 즉 말하자면 법에 의해서 생활하는 데 그대로 응용한다면 좋죠.

질문자7(남) 큰스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큰스님 말씀 하나도 빼먹지 않고….

큰스님 관세음보살 따로 찾고 뭐 따로 찾고 이런다면 어떻게 부처님이 여래가 될 수 있어요? 보세요. 한 부처님이 마음을 내면 아촉이 될 수도 있고, 아미타도 될 수 있고, 관세음도 될 수 있고, 지장도 될 수 있고, 칠성 부처도 될 수 있고, 산신도 될 수 있고, 용신도 될 수 있고 모두가 한 부처 속에서 나온 거란 말입니다. 용신이란 법을 말하죠? 생각을 내는 거를 바로 용신이라고 해요.

질문자7(남) 큰스님,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것으로써 오늘 큰스님의 법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큰스님께서는 오늘 통역 법문까지 하시느라고 아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오늘같이 이렇게 행복감을 느껴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저희 공부가 소홀한데 저렇게 타국 만 리에서까지 저희 큰스님을 뵙고 마음공부를 하려고 온 오스트리아 비엔나 청년, 상당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박수 한 번 보내 주시죠. (대중 박수)

큰스님 (합장하시며) 저분이 좋아하시는데요, 하하하. (대중 웃음)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4년 9월 4일 법형제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페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페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